

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줄인 말입니다.

LGBT PAPER

판매가 1500원 - 소식지 수익금은 다음 소식을 발행하는데 쓰입니다.

2004 8·9월호

발행일 / 2004년 8월 12일 발행처 / 동성애자인권연대 출판부 발행인 / 정윤 편집 / 강태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5층 Tel 02)778_9982 Fax 02)775_9983



이라크내 모든 외국군 즉각 철수하라 !!

법원은 동성간 사실혼 관계 인정하라 !!

LGBT PAPER 동성결혼 어떻게 봐야할까 02/ 이라크내 모든 외국군 철수! 한국군 철수! 04/ 부시와 맞장뜨기
05/ 한국동성애운동 10년 06/ 민노당 성소수자위원회 08/ 상담센터 10/ 방콕 AIDS컨퍼런스
참관기 12/ 독자편지 13/ Queer Eye (빠에르&젤 展,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14/ 인권운동과 나 15

동성결혼 어떻게 봐야할까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한국 : 동성 간 사실혼 불인정과 건강가정기본법

얼마 전 한국법원이 처음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이성애자들만의 것으로 못박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 지방법원은 여성인 원고 A씨가 2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동성간 결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분위기에서는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성 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사회관념 상이나 가족질서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우리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이성혼만 혼인으로 인정하고, 동성혼은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법원이 사회통념과 가족질서유지의 문제를 들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아예 드러나지조차 않았던 동성결혼문제가 한국사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한 편, 2003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가정기본법' 또한 기존의 가족질서를 수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출산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혼률이 증가하는 요즘의 추세가 가족의 위기를 반영한다고 보고,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는 다른 여러 종류의 가족을 인정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 동성결혼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이 법이 출산과 양육을 위한 '건강한' 가정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는 이혼을 예방한다거나 가족해체를 예방한다는 식의 문구들이 들어가 있다. 만약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보장하려한다면, 이혼과 가족해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만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얼마, 아빠와 자녀로 이루어진 이성애자 가족의 가치와 질서가 얼마나 견고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반영한다. 실제로 우리는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혈육의 끈끈한 정을 그린 텔레비전프로그램과 수많은 표어들 속에 살아간다. 어느 누구도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이 개인이 선택할 문제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더욱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가족

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냐며 반대하기도 한다. 때문에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촉발될지도 모를 동성결혼 인정을 위한 투쟁은 견고한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미국 : 동성결혼 찬반논쟁과 대선

최근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메사추세츠주 법원의 결정은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파의 역풍도 만만치 않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동성

결혼인정 움직임이 일자, 연방차원에서 혼인보호법(DOMA)을 1996년 통과시키고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못박았다. 이 법은 합리적 설명보다는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시와 공화당 계열, 그리고 강력한 종교단체들은 일제히 이를 비난하면서, 당장이라도 가족이 없어져버릴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 부시는 종교적 입장에서 그간 동성간 결혼을 반대해왔으나 역시 결혼은 남녀간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라며, 미국사회의 건강한 가족제도의 유지를 위해, 헌법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미 중서부 미주리주에서는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 권리가 주목을 받자 보수주의 운동가들은 동성결혼 금지조항을 강화하여 통과시켰다. 남부 루이지애나 주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음달 주민 투표에 상정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2일 선거에서는 아칸소와 조지아, 캔터키, 미시간, 미시시피와 몬태나, 오클라호마, 오리건, 유타주가 주민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동성결혼 찬반논쟁이 불붙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동성결혼문제를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부시는 이라크전쟁 장기화와 반인륜적인 점령으로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사회의 보수적 정서에 기댈으로써 회복시켜보려고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이다. 부시는

지난 9.11이후 사회를 급속히 보수화시켜왔다. 인종 차별을 강화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내쫓고, 사회보장을 없앴다. 동성결혼과 같이 일반적으로 터부

시되는 이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회를 냉각시키고 이라크전쟁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켈리의 텃밭은 메사추세츠주인데,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 발표가 나면서 켈리의 입장은 좀 난처해졌다. 때문에 그는 각종 보수단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만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개정에는 반대하는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켈리의 이런 태도는 동성결혼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 낙태 등의 민감한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그의 태도를 매우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켈리가 결코 부시보다 낫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족제도와 결혼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기능은 무엇일까?

동성애자 억압과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

사회에서 가족과 결혼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우리가 당연하게만 여겨온 가족과 우리를 감싸는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한다.

일단 가족을 떠올려보자.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로 이루어진 평범한 가정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들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하게 그려진다. 하지만 세상에 이런 가족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째서 우리사회는 단지 이러한 구성만을 가족이라 얘기하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이 가족이라면 어째서 사회는 그러한 방식을 권장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결혼의 형태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의 모든 면에서 강제하는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자. 중세시대의 가내수공업은 가족이 하나의 생산단위가 되었다. 가족 내의 분업이 존재하였고, 이를 지휘하는 것이 아버지인 가부장이었다. 이를테면 중세시대에서 가족이란 생산양식과 제도, 혹은 사유재산의 소유관계에 의한 필수적인 구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초기자본주의는 이러한 상황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개개인 노동계급이 되어 대공장으로 흡수되었다. 가족은 더 이상 생산의 단위가 아니었으므로 사람들은 이전보다 좀더 자유를 만끽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누리하고자 했다. 이 초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상황은 매우 혹독했는데, 노동계급은 공장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고 남/녀/아이들의 구분 없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므로, 이전의 가부장의 지위도 사라져가고 가족이라고 해봤자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 어떤 보호장치도 없던 노동계급은 자신의 몸통이 망가지면 그대로 구빈원이라는 끔찍한 감호시설에 끌려가야만 했다. 영국에서 아이들은 계속 죽어갔고, 끔찍한 노동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30대쯤에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존재할리가 없었고,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수도 없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존에 대한 절박함으로 가족을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프면 자신을 보살펴주고 돌아오면 쉴 수 있는 사적 공간이 필요했다. 자본가를 또한 노동력의 재생산이 안 되는 문제가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양계급은 타협을 했다. 아버지가 가족의 대표로 일하고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받아오는 가족임금이 채택되었다. 이후로 현대사회까지 이러한 형태의 가족은 계속 강화되어왔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기본적인 소비의 단위이자, 노동력을 돈한돈 안들이고 재생산해내는 아주 견고한 자본주의의 한 축이 되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가족은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내용을 보아왔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고 있는 산업역군, 사회엘리트로 키우기 위해 어린시절부터 돈을 쏟아 부으며 양육을 한다. 사회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최소한의 도움과 보장도 약속하지 않는다. 때문에 "열정" 부모님을 두지 못한 아이들, 혹은 그럴 능력이 없는 부모들, 아니면 아예 노동력재생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등에 대해 사회는 매우 배타적이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독신모-미혼모-, 한부모가정-편부모가정-, 독신들-노처녀,노총각-,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와 같은 동성애자들, 이들은 건강가족의 저 멀리 서있는 이들이다. 우리는 입양 내지는 인공수정을 하기 전에는 대다수가 아기 낳을 일이 없는 동성애자들이다.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집단화시켜서 건강한 이성애가족과 구별 짓고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실제로 우리가 커밍아웃했을 때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다. 대가 끊긴다거나 결혼도 안하고 여자가 어떻게 혼자 사나거나, 애를 못 낳고 늙어갈 문제에 대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동성애자들이 있어왔음에도 인간의 대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왔으며, 인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한 노동력재생산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갖 법제도와 도덕의식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이다. 가사와 양육을 사회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그래도 노동계급의 가족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의 중심에는 '혼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혼인은 다분히 물 사이의 사람의 결합이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동성애자의 결혼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으며 신의 섭리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된다. 하지만 사회는 말 잘 듣는 착한 가족에게 주어진 사회적 혜택조차 다양한 종류의 결합에 확대시키기를 싫어한다. 지금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 간 결혼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전제 하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자본주의사회 가족의 위기

앞서 지적했듯이 동성애자와 동성간의 결혼을 금하는 사회적 통제의 중요한 이유는 재생산과 출산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가 견고한데 비해 지난 10년간 가족의 모습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산률이 하락했다. 2001년 통계에서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3명으로 보고되는데, 2.1명이 되어야 현재의 인구가 보존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요인이 되는 젊은 세대의 독신 혹은 만혼 추세는 교육, 취업률, 결혼관 변화와 맞물려 더해가고 있다. 다음은 이혼률의 급증인데 2001년도 총 이혼수가 총 결혼수의 35%에 이르러서 세계적으로 이혼률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데에는 이러한 한국 사회 가족의 위기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것들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은 기존의 가족형태가 견고히 유지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동성애자들에게 유리한 점이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의 압력과 가정 내에서의 차별에 시달리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더 커지게 된 것은 더 나아진 상황이다. 이는 예전에 비해 여성의 취업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가 더욱 신장될 수 있었던 예와 비슷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원치 않아도 가족이 부서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 중 하나는 경제난과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동반자살과 이혼, 가정폭력에 관한 것이다. 신용카드빚 독촉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거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끔찍한 일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가족은 좋은 것이며 지향해야 할 가치라는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다. 가족을 강화하고자 애쓰는 자들과, 가족을 파탄 내는 자들은 결코 다르지 않다. 현대 사회 가족의 위기는 개개의 가족 구성원들의 의식이 약해졌거나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의 비용이 그대로 개인에게 전가되고 가족 운영 비용 또한 사회가 보장하지 않는 곳에서 돈에 조물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위기를 촉발하고, 이 안에서 동성애자들은 가족이데올로기 강화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탈가족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동성애 억압적인 요소들이 모습을 감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계급은 가족해체의 위기에 직면



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초기자본주의 시대에 형성된 가족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억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성결혼은 쟁취해야 할 권리

앞서 이야기 했듯이, 결혼제도자체가 동성애자의 삶에 있어 그다지 이로울 것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성 간에 자유로이 결혼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성애자가 결혼을 원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애정의 문제 외에도 '경제적 안정과 복지혜택'이라는 중요한 경제적 요건의 변화를 보장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직장이 있음에도 쉽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다. 결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게이커플은 법적으로 재산과 상속에 대한 권리, 휴직하고 배우자를 간병할 권리, 연금과 보험 등의 혜택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성애자 부부에게만 주는 사회적 혜택을 동성애자 부부에게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실제로 많은 동성애자 부

부들은 무엇보다 위의 경제적 안정과 생존의 문제로 동성결혼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동성결혼권리 정취를 위한 투쟁은 기존 사회의 보수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동성애자 권리를 진일보케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동성애자가 해방되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존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존의 가족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합과 가족구성에 대한 스스로의 편견을 깨고 다양한 구성과 형태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함께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할 때에는, 출산·가사·양육 등의 문제를 사회가 완전히 보장할 때, 동성애자 또한 근본적으로 가족과 결혼이 규정하는 테두리에 구애받지 않고 해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지금 당장 동성결혼권리를 위한 투쟁이 촉발되기에는 여러 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처럼 동성애에 억압적인 국가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조차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는 제도에 반대하는 투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 철수! 한국군 철수!

단영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지난 8월 3일 노무현 정부는 추가 파병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이툰 부대를 '도둑 파병' 시켰다. 노무현은 김선일 씨가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도 동맹국과의 약속과 '국익'을 위해 파병방침을 고수했던 자이다. 덕분에 노무현은 부시로부터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칭찬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지는 "노 대통령은 시위에 직면했으나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국민을 설득했다"며 노무현을 치켜세웠다. 그러나 그의 이런 '의리 있는 행동'이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평화가 아닌 제2, 제3의 김선일 씨와 같은 죽음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죽음이란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세계재패 전략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부시와 부시의 이라크 침공에 함께 동맹국으로 참여했던 나라들의 지배자들은 많은 곤경에 빠져있다.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었던 '대량 살상무기'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공식적으로 근거없는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시작된 이라크 침공이 잘못된 과정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져 부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영국에서 나온 버틀러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정보기관이 이라크 전에서 집단적인 정보 실패를 저질렀음이 입증되어 블레어 총리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조기 철

군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뻔뻔스럽게도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이라크 민중을 해방시킨 것으로 그들은 고마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수많은 이라크인들과 군인들이 죽었다. 이라크인들만 1만 5천여 명이 죽었고 미군을 포함해 사망한 군인만 1천명이 넘었다. 전쟁 중 사용된 열화우라늄의 영향으로 이라크 바스라 지역의 경우 장애아 출생률이 7배나 증가하였다. 2003년에만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390명이 사망 총 98회의 자살 공격이 이루어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테러와의 전쟁'이 아닌 '테러양산' 전쟁이 되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전쟁 전 3%선이던 실업률이 60%로 급등하였고 세계 석유매장량 2위인 이라크는 오히려 석유가 모자라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독재자 후세인으로 부터의 '해방'은 커녕 이라크 민중을 더 많은 궁핍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해 이라크 민중의 저항이 거세져 미국은 예정된 날짜도 맞추지 못하고 위선적인 주권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라크 주권양상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새롭게 뽑힌 이라크 각료 20여명은 거의 친미주의자들이다. 독립된 국가라는 곳에 여전히 14만 명의

미군이 상주하

며 이라크 민중을 마구

자비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다. 미국에 의해 내려진 100여개의 포고령은 그야말로 이라크를 미국의 통제 하에 다국적 기업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제일조건으로 놓았고 외국인 투자법이 그대로 온존하며 이라크 재건 사업에 이라크 사람들은 열외로 놓여져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한다.

그에 반해 부시와 미국의 석유회사나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이라크 침공을 기회삼아 한뼘 단단히 챙기려 혈안이 되었다. 석유와 관련된 사업은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는 노다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더러운 비리들이 함께 한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재건 사업에 가장 큰 규모로 뛰어든 민간기업인 할리버튼사의 경우 제공하지도 않은 군인들의 식사비용으로 1억 6천만 달러를 수령했다. 또한 하지도 않은 연료배달에 6100만달러를 청구하는가 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하청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만 600만 달러이니 드러나지 않은 더러운 거래들은 더욱더 많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기업들이 이런 더러운 탐욕에 가득 찬 부시와 석유,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를 함께



나누고 싶어 안달 나 파병을 강행한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에 빌붙어 경제적 정치적으로 한몫을 챙기고 싶어 한다. 한국 국가는 미국 제국주의에 협력함으로써 세계1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력을 세계에 과시해 "국가 위상"을 높이려 한다. 한국 국가가 국경을 넘어 군사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미국의 하위 동맹으로서 미국제국주의를 돕는 것인 동시에, 한국 지배자들의 이익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 국가가 올해 초 3월 현대 건설이 2억2천달러와 오무전기가 6백만달러, SK건설이 1억달러규모의 바그다드 석유화학플랜트 입찰에 참가중이고 두산중공업도 전력부분 재건 사업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그 밖의 여러 대기업들이 수주를 추진하고 있고, 2천 3백여 개 단위 프로젝트별 하청 방식의 중소기업참여도 예상되고 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이라크 파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2008년 까지 10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라크 전쟁으로부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추가파병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할 역사적 과업인 것이다. 노무현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주들을 포함한 한국 지배자들의 이익이며, 이것이 바로 "국익론"의 실체이다.

이런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노무현 정부는 바로 지난 3월 자이툰 부대의 도둑파병을 강행했다. 노무현이 그리도 주장하던 국익이 정말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도둑파병'을 할 수 밖에 없었겠는가? 9.11테러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과 이라크 침공, 위선적인 이라크 주권이양, 김선일 씨의 죽음, 그리고 다시 추가파병으로 이어지는 지난 몇 년간의 전쟁반대 행동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전쟁 반대의 행동이 없었다면 노무현은 아주 쉽게 추가파병을 강행했을 것이다.

이번 추가파병의 모습을 보며 파병에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한 사람들은 많이 기운이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간 해온 반전

운동이 실패라고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근 몇 년간 이어온 전쟁 반대 행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시작된 반전 운동이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지난 6월 26일에는 김선일 씨 죽음에 대한 분노로 1만 5천 여 명이 거리로 나왔었다.

한국군을 포함한 외국군대 모두가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이라크를 이라크 민중에게 돌아가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60년대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운동은 600명의 대열에서 수 백만 명으로 늘어 결국 미국을 패배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60년대보다 훨씬 더 많은 대열로 시작하는 전 세계적인 반전시위대오가 함께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반전 운동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더 거대한 운동들과 함께 해야 하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 안에는 바로 우리 동성애자들의 운동도 포함된다. 그래야만 이 더럽고 추악한 전쟁이 끝장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시와 맞장뜨기 !! 화씨9.11 영화

〈화씨9.11〉은 미국에서 개봉첫날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개봉관의 3분의 1이 여름철 블록버스터를 상영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얼마전 국회의 원회관에서 마이클 무어의 영화 〈화씨 9.11〉시사회가 있었다. 200여명 정도의 좌석에 강당이 1000여명으로 가득 채워졌었다. 의원회관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미국 부시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 지 잘 보여준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라가 세계 파병 3위 국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국익'을 위한 파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화씨 9.11〉은 미국의 대통령 부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민주주의'의 나라라는 미국은 온갖 사기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그는 당연히도 취임식 날 대중들로부터 달걀 사리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하원 의원들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동의하는 상원의원들이 없어 기각되고 그 기각을 한 장본인은 바로 민주당 경쟁자 앨 고어였다.

이 영화는 부시가 사우디 가와의 친밀함으로 미국의 정부 지배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챙겨왔는지 낱알이 밝히고 있다. 또한 〈화씨 9.11〉은 이라크 전쟁과 점령을 고발한다. 한 이라크 어머니는 왜 크리스마스 어브 한밤중에 아들을 잃어야 하는지 묻는다. 미시간 주 플린트 출신 미군 병사의 어머니는 반전시위대를 좋아하지만 아들이 죽은 뒤 전쟁에 반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좋은 취업기회"라며 아들에게 군입대를 권유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말한다.

마이클 무어는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한 전쟁, 대량살상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 동등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이데올로기가 거짓말이었음을 폭로한다. 또한 전쟁을 위해 자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부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결국 미국의 국민들도 비상 냉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시는 "독재란 정말 하기 쉬운 거"라며 스스로 테러에 대비하라는 부시다운 말을 내뱉는다.

9.11이후 제정되어 만들어진 '애국법'의 경우 개인의 자유는 침해되건 말건 안전이 중요하며 모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아주 코믹하게도 마이클 무어는 이 애국법이 얼마나 형식적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만 떨게 만들지 보여준다.

전쟁도 빈부의 문제고, 사회에서 지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는 것임을 꼬집어 주는 화씨 9/11. 부시는 자신의 반석은 "부자들 그리고 더 부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부자들을 위한 전쟁, 가난한 노동자들의 자식들이 돈을 벌기 위해, 대학을 가기 위해 강제나 다름없이 이라크로 가서 죽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부자들을 위한 전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며칠 전 자이툰(자이툰은 이라크 말로 올리브 나무란 말이고 뜻은 평화이다.)부대를 추가 파병시켰다. 안타깝게도 영화 속에서 아들을 잃어 오열하던 어머니의 모습

을 우리는 이 나라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그 슬픔을 적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끈기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아마도 세상을 움직이고 인간이 우선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첫 출발로 이 영화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며 희망을 만들어 가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한국동성애 운동 10년

-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를 중심으로 -

을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2004년 6월 종로 한복판에 레인보우 깃발이 휘날렸다. 굵은 빗줄기 아래에서 4회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 선보였고, 유인물 피켓을 통해 자신들만의 주장을 펼쳤다. 과거 진행된 행사와는 다르게 흥세화씨,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애인, 이성애자, 문화·인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동성애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전쟁, 파병, 탄핵, 사형제도, 병역거부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을 두고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설문을 자주 실시한다. 설문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통해 익명의 많은 동성애자들이 정치적 쟁점에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의 급진화된 주장은 단지 주장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탄핵반대, 전쟁반대 '촛불번개' (?)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도 했다. 이것은 10년 동성애자 운동의 현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 의미를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동성애운동 10년의 길 ”

시작

60년대 농촌경제가 쇠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돈을 벌수 있는 도시로 몰리면서 친지 가족 중심의 생산경제는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60년대 이후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급격히 빠른 속도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90년대 초반까지 이태원, 낙원동, 금호동, 신당동 등 업소 중심의 게이게토는 은밀히 만들어져 갔다. 지금 관광 상품으로서까지 알려진 게이바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자신의 정체성조차 혼돈스러운 사회에서 화장실 너서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었던 시대에 운동을 꿈꾼다는 것이 마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미친 짓일 수도 있었던 그 때의 상상은 93년 초동회의 건설(12월)로 구체화되었다. 몇 명의 동성애자들이 외기투합해 만들어진 이 모임은 정체성의 동일함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모

임이었다. 안타깝게도 초동회는 소식지 1호 발행 후 해체되기 이른다. 이듬해 2월과 11월 남성동성애자단체 [친구사이] 여성동성애자단체 [끼리끼리]가 분리해 출범을 하게 된다. 당시 객관적인 여건들을 살펴보면, 당시 분리되어지는 과정이 그리 논쟁시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미 낙원동에 게이커뮤니티가 존재했던 남성모임은 독자적인 준비가 쉬웠지만 여성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여성모임을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끼리끼리를 조직했던 활동가는 친구사이 소식지에 계속 모임결성에 대한 제안 글을 올렸는데, 이것은 당시 분리의 시점이 논쟁적이지 않았다는 증명이기도 할 것이다.

95년부터 대학 동성애자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각 학교 모임 대표들의 활발한 활동들은 그 해 6월 '동성애자인권단체협의회' (이하 동인협)가 결성되면서 인권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96년에는 통신모임(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종교모임, 지역모임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통신모임이 만들어지면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는 점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만남을 가지는 등 소통이 자유로워졌고, 친목과 인권이 결부된 나름대로의 활동들을 해나갔다. 또한 지역모임이 활발히 결성되었다. 대구경북지역에 '대경회'가 광주엔 '빛동인' 등 지역마다 모임들이 뿌리내려갔다. 당시 커뮤니티가 서울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 지역모임이 결성되었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대경회의 남성회원들과 끼리끼리 여성회원간의 사건은 정치방향의 부재가 분리주의를 낳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이로 인해 단체간의 신뢰와 연대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점에서 큰 교훈으로 남고 있다.

연대

당시 동인협 소속의 연대투쟁위원회는 97년 1월부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몇 번에 걸쳐 유인물을 배포하는 활동을 비롯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활동, 토론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 나갔다. 그 당시 활동의 의미를 몇 가지 짚고자 한다. 먼저 소수에 의해 한정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일부가 노동자 계급과의 직접적인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스스로의 모순과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또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낸 시점이기도 하다. 당시의 투쟁은 내부논쟁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 자체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많은 동성애자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후원금, 집회 참여로도 확인되는데 당시 300만 원이라는 지지금 모였을 뿐만 아니라 72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아마 정치적 쟁점에 동의를 못하더라도 아마 많은 동성애자들은 그동안 꿈꿔왔던 집단적 드러내기에 찬사를 보냈을 것이다.

둘째, 무분별한 다양성의 존중에서 파생될 수 있는 중간 계급적 운동방식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즉 동성애자 사이에 계급의 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투쟁이 거센 만큼 동성애자 탄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가위 감독의 '해피투게더'가 상영금지조치 되는 등 문화영역에서의 심의검열이 진행되었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에이즈의 주범으로 노골적으로 몰기 시작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동성애운동을 성장시킨 계기이기도 하다. occur에 대한 법정투쟁 지지시위 - occur는 일본 게이레즈비언 인권단체로 당시 국가 소속 수련원 사용에 있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용 금지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법정소송을 하였다. 이는 occur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는 국제연대의 모범을 보여준 투쟁이기도 하다. - 나 탑골공원 앞에서의 동성애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을 쓴 교과서 내용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집회, 공론심의 철폐 서명운동 등 동성애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증진시켰다. 이 활동은 지금의 동성애자인권연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이라는 명칭아래 그해 11월 출범하였다.

98년은 새해벽두부터 '에이즈' 문제로 시끌어왔다. 에이즈를 동성애자의 질병쯤으로 여기는 언론의 횡포에 동성애자들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직접 나선 것이다.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에이즈퇴치연맹을 상대로 가두집회를 개최하거나, 직접 연맹 관계자를 만나 수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대동인, 하이텔 동성애자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대부분의 단체는 명의활동만을 하는 아쉬움을 남겼으며, 당시 통신모임은 가장 공격

받기 쉬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신모임은 단체입장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사우나, 극장을 이용하는 게이와 천리안을 이용하는 게이를 분리했다. 또한 일부 레즈비언 활동가들 역시 '레즈비언과 에이즈의 무관함'만을 말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일부 활동가들이 거시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판단된다. 이 활동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가 제안되지만, 단체간의 입장차이, 활동의 부재로 유명무실해졌다.

99년부터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으로 물리기 시작했다. 인터넷은 동성애자들에게 해방구로 자리 잡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차별, 인권이라는 개념도 상실하는 듯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동성애단체들은 타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 인권위 결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다. 인권의 범주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3년간의 끈질긴 투쟁은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시켰으며 최초의 동성애자 공무원을 탄생시킨 성과를 가져왔다. 이는 홍석천씨의 커밍아웃 사건을 인해 다시 한번 동성애가 사회의 키워드로 떠올랐을 때 다양한 시민, 인권단체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후 인권의 범주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배제할 수 없음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01년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이 조직된다. 인터넷 친목단체 운영자까지 참여한 광범위한 공동행동이었다. 원인이 되었던 것은 일종의 해방구로 여겨졌던 인터넷 공간에서 동성애가 음란, 퇴폐라는 딱지가 붙여졌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최초의 게이 웹사이트인 엑스존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정되어 지금까지도 법정소송(대법원 상고심 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20여개가 넘는 단체가 넘는 공동행동은 동성애자 웹사이트 시한부 파업이나 정통부 앞에서 집회를 조직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압박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단체들 간의 마찰로 인해 활동은 지리멸렬해졌다.

03년이 되어서도 청소년보호법 상의 동성애 조항 삭제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아웃팅의 위험 속에서도 거리에 직접 나와 본 차별조항이 왜 부당한지를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이로 인해 서명 4일 만에 1000명이라는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았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 아이를 업은 엄마, 나이 지긋한 중년 등 연령 성별 성지향과 무관한 그들의 지지는 동성애자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동성애자들의 투쟁은 윤현석군의 자살사건, 반전운동에 동성애자들이 결합하는 활동과 맞물려, 더욱 확대되었다. 이런 투

쟁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채득한 자신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와 같은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회피하지 않는 활동으로 나아갔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한국기독교학생총연합회와 같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결국 3년간의 끈질긴 투쟁으로 인해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 상의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2003년 또 하나 이슈였던 전쟁을 반대하는 행동에 동성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과거와 다르게 익명의 많은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웹 사이트에 올리며 서로 공감하기 시작했고, 단체 활동가들은 60명에 가까운 동성애자들의 집단적인 드러내기를 성공시켰다. 집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연설, 주장에 귀 기울였고, 지지의 박수를 보냈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동성애 조항 삭제운동과 결합시키며 동성애 이슈는 반전운동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집회 장소 안에서 500명이 넘는 서명을 조직하는 것은 물론, 동성애자 신문, 버튼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2004년 지금, 많은 동성애자들은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존재'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고, 제도적인 동성애 차별 문제 역시 제기되어지고 있다. 여전히 에이즈의 주범으로 가족질서를 해치는 집단으로 낙인찍혀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어쩌면 동성애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진보운동 내에서조차 동성애억압의 원인조차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중심해 결과에서 배제된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한다던가 합당한 이유없이 집회발언권을 제지하려는 했던 모습은 진보운동 내에 동성애운동이 있었다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하지만, 동성애 운동 10년을 가시적인 부분만으로 한정지어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 아웃팅 위험과 호모포비아들에 의한 폭력과 범죄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활동가들의 활동의 한계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런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며, 지금까지 이어온 운동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동성

애자 대중과 함께 투쟁하려는 모습 또한 원칙을 지키려 했던 중요한 부분이었다. 교과서 상의 동성애 비하 표현을 삭제시킨 활동이나, 인권위 설립과 인권위법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의 명문화시키는 활동, 청소년보호법 상의 동성애 조항을 삭제 시킨 활동 모두 10년의 성과로 동성애자 대중과 함께 만들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급진화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기도 한다.

또한 동성애운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과거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노동자운동, 반전운동 속에서의 동성애자들의 집단적인 드러내기는 독자적인 동성애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독자성은 따지만, 그 자리에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다. 지금 이 구태의연한 이성애자, 동성애자 대결구도를 벗어나 동성애 억압의 원인과 대안을 찾는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많은 동성애자들의 지지 속에서 구성된 공동행동은 동성애자들의 power를 대변하였다. 단체간의 입장차이 사이 속에서 쉽게 무너져간 연합체와는 쉽게 비교된다. 98년 한동협은 탑골공원에서 열린 출범식을 시작이자 마지막으로 해산되었지만, 같은 해, 에이즈를 동성애자들의 질병쯤으로 본 언론과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항하기 위해 건설된 공동행동과 2003 동성애차별반대공동행동은 동성애자들의 직접행동을 조직하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 거대한 사이트 파업과 거리 캠페인은 단지 일부 옮겨있는 동성애자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후 사안별 연대(공동)행동에 적극 결합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누구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동성결혼은 세계적인 추세로 인해 10년 정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누구는 많은 게이, 레즈비언들이 돈을 많이 가져야 동성애자들이 power를 갖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10년의 변화만 본다면 맞는 말일지 모른다. 하지만, 10년의 역사에 적혀있지 않는 부분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이 존재하고 있고, 눈물과 슬픔이 존재한다. 또 죽음이 존재한다. 다시 되돌아가지 말자! 그리고 잊지 말자! 10년의 역사에는 바로 당당하게 행동한 동성애자 당신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준)의 건설과정을 바라보며

고승우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2004년 4월 작은 성과를 얻어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것이었다.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이 성과는 이

제 시작임을 알리

는 신호탄이었

다. 법상의

차별조항이

삭제 되었

으니 이제

부터는 성

소수자 인

권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의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또 하나의 환영할 만한 진전을 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해 낸 것이었다. 2004년 총선에서 동성애자들은 민주노동당의 성소수자 정책을 보며 자신들을 지지해줄 정당으로 당연히도 민주노동당을 택하고 지지선언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특히 총선기간동안 민주노동당 지지모임인 '붉은 이반'의 활동은 훌륭했다. 붉은 이반의 회원들은 동성애 커뮤니티에 민주노동당의 성소수자 정책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고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갖게 되었다. 많은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은 민주노동당의 성공을 환영했고 앞으로 동성애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을 당부했다. 사회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성소수자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는 컸다.

하지만 진보에서도 불균형한 의식이 곧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정책위의장 후보 이윤대씨는 동성애를 "자본주의의 파행적 현상"이라고 민지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붉은이반'의 질의서에 김진선 후보는 동성애를 이성애로 돌아와야 할 비정상적으로 취급했다. 즉각적으로 붉은이반은 이 두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쳤고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공식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붉은이반의

낙선운동에 대한

많은

리고 유럽의 여타의 국가에서 사회민주당들이 어떻게 우경화해왔는지 그리고 최근 브라질의 PT당의 변신을 통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한국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아직 결정

되어있지 않다. 딱히 외국의 사례를 좇아 가란 법도 없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경계보다는 어떻게 민주노동당의 힘을 성소수자 운동 발전을 위해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 내에 성소수자위원회(준)가 만들어진 것은 의미가 깊다. 한국의 제 3당내에 성소수자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다. 이것은 단지 민주노동당 내의 몇 명의 동성애자 당원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 사회에

서 동성애 운동이 10년동안 어려움을 무릅

쓰고 벌였던 활동으로 인해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정점화되었고 그것을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받아 안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가장 첨예한 대립의 구도가 동성애의 쟁점을 가지고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안의 개인적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성소수자위원회(준)은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다. 당내 조직이지만 많은 성소수자들과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확보하는 문제, 각 동성애 인권단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확보하는 문제 등이 아직 과제로 남겨져 있다. 위원회가 초기 사업으로 성소수자 대중과의 토론회를 상정해 놓고 있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위원회로 끌어들이고 위원회의 활동을 정해나가는 데 무척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위원회와 각 동성애 인권 단체들간의 관계도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 건설초기의 어려움으로 위원들이 각 동성애 단체들에서 충원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각 동성애 단체가 위원회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각 동성애 단체들로부터 10년의 성과를 흡수하고 사안에 대해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면서 서로 건전한 비판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위원회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문제는 어쨌든 커밍아웃의 문제일 것이다. 아무리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커밍아웃은 대단히 어려운

지지자들이 생겼고 민주노동 여성사업 담당자들은 자신의 실명을 걸고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붉은 이반을 지지하는 일반들의 모임인 붉은 일반까지 조직되었다. 동성애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불균형을 바라보며 붉은 이반에서는 이전부터 고민했던 당내 성소수자위원회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이 결성되었다. 갑작스레 동성애 운동내에 획기적인 사건들이 속속 터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성소수자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었던 사회의 소수자들은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배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여타의 인권단체들은 입법투쟁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물론 법을 만드는 과정이 단지 국회의원 몇 명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법안을 상정하고 실제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원래의 취지를 얼마나 후퇴시켜왔는지 이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보아왔다. 따라서 단지 입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중적인 투쟁을 만들어가면서 국회를 움직이느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법이 인권단체들이 제기했던 안보다 훨씬 후퇴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과 최근에 만들어져 다시 개정을 운운하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을 보면 국회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도 영국 노동당이 어떻게 자신의 지지기반이었던 노동자들을 배신해왔는지 그



일이다. 그런 이유로 위원회 건설과정에 붙은 일반 구성원들의 힘이 컸다.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하여 활동하지 못할 때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성애자들의 활동은 더없이 소중한 일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위원회 활동을 하는 이성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간과할 순 없다. 먼저 단지 성소수자인권을 지지한다고 해서 성소수자들의 일상적 어려움이 저절로 이해되거나 내재된 포비아가 저절로 사라지진 않는다. 따라서 성소수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이성애자들은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성소수자 스스로 위원회 활동을 감당해 나

가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건설하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 찾기를 비장애인 이 대신 해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도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을 방어하며 앞으로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의 열원으로 표현된 정당이다.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당으로 진보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미흡하다거나 외국의 정당들처럼 자신을 배신하려 할 때 노동

자들은 스스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성소수자도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으면서도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것은 단지 성소수자들의 피해의식이라고 치부되어선 안 될 것이다. 지난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에서 보듯이 편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집중시켜 당 정책에 반영하고 한국의 진보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이 바로 설 수 있게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성소수자 대중의 굳건한 토대 위에 위원회가 발전하길 기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앞서서 성소수자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성 소수자위원회(준) 건설에 붙여

대한민국 성소수자 투쟁 역사에
신기원을 열어 갑니다.

한국 정당 역사상 최초, 실질적 존재를 가진 진보정당의 건설.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 진보세력의 원내진출.

한국 성 소수자 해방 투쟁사에서 최초의 정치정당 내 공식 기구 건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장애인, 이주 노동자, 성 소수자들의 이해와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자 정당, 서민정당, 인권정당, 모든 소수자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당내 공식기구로 '성소수자위원회(준)' 건설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동안 성소수자 진영 내 여러 단체들에서 활동해오던 민주노동당 이반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모임인 '붉은이반'을 결성한 지 4년. 그동안의 노력과 열의가 모아져 만들어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은, 성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데 작지만 알찬 힘을 보태려 합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당원들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소수자들의 모임인 '붉은이반'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성소수자진영 내에서 전개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붉은이반'은 막 한 살 먹은 갓난아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엔 단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에 성소수자들의 힘도 함께 모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당강령에 포함시키고, 진정 자신의 것으로 고민하는 유일한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라는 수준의 실책이었습니다. 포장은 화려하되 내용은 없고, 역면은 그럴듯하되 실질은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붉은이반'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 앞에 나선 것은 이번 415 국회의원총선거였습니다.

'붉은이반'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성소수자진영 내에서 법/제도적 차원에서 제도화 될 수 있는 내용을 고민하여 나름대로 공약의 형태로 만들어 내었고, 선거 기간동안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관점을 묻는 질의서작업 등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소수자 여러분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성소수자진영 내의 많은 분들이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동참해 주셨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과 약진의 배경에, 우리 성소수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함께 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 또 한 걸음 다가갑니다. 지난 7월 민주노동당 당원인 성소수자들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이 건설되었습니다. 본 성소수자위(준)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모임 '붉은이반'을 토대로 하여, 7명의 위원단과 친구사이, 동인련 등 자문단체와 서동진씨, 한 재운씨 등 자문위원들

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때는 조직으로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해내겠다는 큰소리는 허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 나가면서, 성소수자 진영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민주노동당 내 다양한 당원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하여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함께 해도 좋은 조직으로, 여러분이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의 공식기구로, 그렇게 여러분 앞에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갈피가 지워지지 않은 난마처럼 얽혀있는 고민과 해법의 와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천정 단체라 할 수 있는 '붉은이반', 성소수자 커뮤니티내의 많은 단체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소수자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해방세상을 만들어 가기위해, 거북이처럼 더디지만 힘차게, 끊임없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해주시고,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매섭게 질타해주시고, 여러분의 애정 어린 비판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걸음 한걸음 함께 나가는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04년 8월 2일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준) 올림.

상담센터

고승우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한국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삶의 여러 지점에서 성소수자들

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껏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위안을 얻을 공간이 전무했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한 여러 실질적 위협에 봉착해서도 도움을 요청할 데가



원 신청자 중에는 이미 상담교육을 받았던 분들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나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상담에 대해 전혀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다. 이런 편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상담센터

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성소수자 전문상담센터(준)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되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먼저 상담센터를 이끌어갈 자원봉사 상담원을 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면서 누가 신청할까란 고민도 했지만 우려와 달리 성소수자전문상담센터(준)에 관심을 갖는 성소수자와 이성애자들이 있었다. 20명 정도의 자원봉사 상담원들을

확정하고 상담원교육에 들어가게 된다. 상담원 신청자 중에는 이미 상담교육을 받았던 분들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나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상담에 대해 전혀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다. 이런 편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상담센터

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가 초보자란 인식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자아성장프로그램과 상담이론 교육을 거쳐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2박3일간의 집중워크샵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상담교육을 거치면서 상담원들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상담센터의 모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일반적인 상담이론을 성소수자 상담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서부터 상담센터가 구성되면 개인의 문제를 접근할 때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담센터의 재정마련을 위한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석달동안의 교육을 통해 이런 고민의 지점을 만들어내고 상담센터의 미래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게 또한 성소수자상담센터(준)의 발전 과정일 것이다. 아직 상담센터의 모습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더욱 많은 토론과 고민을 통해 정말로 성소수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하는 상담센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성소수자 상담센터 집중 워크샵 이후, 과제들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동성애자인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성소수자상담센터 상담원 기초교육이 약 3달간 진행되어왔다. 그간의 상담이론 교육 이후, 성소수자들의 문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실제로 상담에서 성소수자들을 대할 때 필요한 문제들을 익히기 위해 2박3일 동안 가평에서 집중워크샵을 열게 되었다. 여기에는 연사들을 포함하여 스무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성소수자와 억압, 군대와 성소수자, 청소년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심리,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가인권위 접근, 이상의 5개 주제를 잡아 토론을 벌였다. 위의 주제들은 성소수자 운동진영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이기도 하고, 그간 동인련이 받아온 상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꼭 한번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다. 밤늦게 도착한 후발대를 위해 선발대가 준비한 토종닭백숙을 맛있게 먹고 나서 시

작된 토론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7월 30일 밤10시 : 상담센터 방향설정의 필요가 제기된 토론

첫 번째 토론주제는 '성소수자와 억압'에 대한 것이었다. 필자의 발제로 이루어진 이 토론의 주된 내용은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받고 있는 억압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발제자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족·혼인 제도를 통해 동성애를 억압해왔다는 관점에 서서, 동성결혼 논쟁, 에이즈와 사회적 낙인 등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동성애 억압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토론이 당장 상담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성소수자 상담센터가 성소수자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에

매우 필수적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토론은 상담센터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게 하였기에 의미가 깊다. 한국에서 세워질 성소수자전문상담센터는 성소수자들에게 매우 억압적인 이 사회에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개인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상담센터는 1차적으로 상담을 위해 연락을 취하는 성소수자 개인의 어려움과 고통에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각 단체와 인터넷 사이트에 흩어진 상담기록을 훑어보면, 연애, 가족, 군대, 질병, 자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한 개인의 생명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사회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편견과 무지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많은 상황에서 상담센터의 상담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근본적 어려움과 막막함의 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진일보하기 위해 상담활동과 더불어 성소수자 차별의 근본적 모순과 기원이 무엇과 접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 또한 절실하다. 구체적으로 상담센터에서 활동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펼쳐갈 것인가는 위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다.

2-3달 남짓을 상담교육을 받으며 함께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제의 토론은 미리 공지된 바가 없어 당황스럽게 다가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이번 집중워크샵을 준비하며 미처 생



각지 못했던 부분으로, 다른 교육내용에 앞서 한국 성소수자들의 현실에 대해 공부하고, 앞으로의 상담센터의 상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동의를 넓혀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하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토론의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함께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갈 성소수자상담센터가 어떠한 취지와 방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누가 던져 줄 수 있는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 스스로가 시행착오를 거쳐 찾아가야 할 지난한 과정의 시작이었다.

7월 31일로 넘어가는 새벽, 첫 번째 토론이 끝나고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민박집 마당의 평상과 야외의자에 모여 앉아 뒤풀이를 시작했다. 다음 날 일찍부터 일정이 시작되지만 뒤풀이는 새벽4시를 넘기면서까지 이어졌다. 상담센터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여유롭게 뒤풀이를 하거나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던 아쉬움을 다소 해갈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7월 31일 오전10시 : 군대 상담과 성소수자 인권의 딜레마

동인련 활동가 윤의 발제로 이루어진 '군대와 성소수자'에 관한 토론 또한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남겼다. 발제에서 다른 것처럼 군대를 거부하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거부하는 군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선 군대는 성적선호장애와 성적주체성장애 등의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입대를 막고 있으며, 군대 안에서는 동성애적 행위를 계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군대가 성소수자들의 성적지향을 병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동성애에 적대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담에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부분은 군대를 거부하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이 군대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커밍아웃을 한 후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더 많은 수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커밍아웃을 하고 절차를 밟고자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한다.

이 토론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 상담센터가 성적선호장애 등의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를 요구하는 내담자에게 방법을 소개하고 인우보증서 등의 각종 서류를 끊어주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상담센터는 군면제 전문기관으로만 여겨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담사례는 종종 접수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딜레마이다. 그러자면 우리는 어쨌거나 동성애가 정신병이라는 의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성소수자 인권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담할 때 내담자에게 무조건 면제를 위한 절차를 밟게 할 수만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너무 괴로워 도움을 청한 내담자에게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니라는 명제를 설득시킬만한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군대가 성소수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들이 군대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심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성소수자들도 모두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단지 한쪽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때문에 상담은 내담자의 어려움을 중심에 놓고 그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되, 성소수자와 군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토론하여, 일관된 입장을 가지는 편이 혼란을 줄이고 흔들림없는 상담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군대 문제는 앞으로 상담센터가 부딪히게 될 수많은 과제들 중 하나일 것이다.

청소년과 성소수자 문제로 발제를 맡은 홍의표 전 교조 서울지부 전 인권교육국장의 강연은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었고,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일선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무지를 드러내는 자료들은, 하루빨리 동성애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과 청소년 상담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해주었다. 송초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조사관은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제공

했다. 우리가 이후 상담을 받으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31일 오후4시 : 상담 받는 성소수자들이 직접 되어보는 것의 중요함

마지막 강연은 동인련 건강증진팀장이자 간호사인 여기동씨의 발제와 진행으로 이어졌다. 성소수자 정체성 발달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가 보다 더 내담자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면에서 좋은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내담자들의 불안감을 직접 느껴보는 활동이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명이 눈을 완전히 가린 채, 한 명의 손을 잡고 인도 받아 밖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채이거나 얼어지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었는데, 나 또한 눈을 가리고 여기저기서 부딪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렇게 답답하고 무서울 수가 없었다. 이러한 심경이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의 심경과 같을 것이라는 연사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늘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떠나며

빡빡했던 워크숍일정이 끝나고, 나는 개인적인 일로 뒤풀이는 참여하지 못하여 아쉽게 서울행 기차를 탔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번 워크숍이 이후 상담센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고민거리를 제공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상담센터는 이제 의료와 법률에 관련한 상담교육과 차별에 관한 보고서, 상담교육 자료집 등의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이것 말고도 열린 토론회와 사무실 기금마련사업, 상담 시작 등의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많은 일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구성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상담센터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 과도 같다. 상담센터 참가자들의 첫 번째 워크숍은 많은 아쉬움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과제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상곡

AIDS 컨퍼런스 참관기 1

윤가브리엘(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대표)

연재



1985년 아틀란타에서 제 1회 국제 에이즈 컨퍼런스가 열리면서부터 1993년 제 9회 베를린까지 에이즈라는 질병은 최첨단 과학의 발달이 해결해 줄 또 다른 전염병이라고 생각되었다. 생명과 학은 유전자 복제를 하고 있었고 많은 과학자들이 노벨상과 엄청난 부를 쫓아 레트로바이러스 연구에 몰두 하고 있었다. "그 끔찍한 전염병"은 페스트나 천연두처럼 곧 백신과 치료약이 발견되어 모든 이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이라 희망하면서 한편으로는 AIDS 환자들을 철저히 격리시켰다. 그러나 베를린에 모인 세계의 석학들은 AIDS에게 "신비의 한방"은 요원하다고 고백하였다. 과학의 힘만으로는 AIDS는 정복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그 동안 AIDS가 어떤 질병인지, HIV가 어떤 바이러스인지를 토론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AIDS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들을 찾아야 하며, 예방만이 가장 최선이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이후 11년이 흘렀다. 98년 제네바에서의 주제는 'Bridging the Gap'으로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HIV감염 및 치료접근의 차이가 부각되었고, 2000년 13회 남아프리카 두반의 "Break the Silence"는 여성과 동성애자 등 소외 받는 소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2002년 14회 바르셀로나에서의 "Knowledge and Commitment for Action"으로 실천적 의지를 천명해 왔다. 그렇

에도 불구하고 2004년 오늘, 세계는 3800만 감염자와 하루 747비행기가 15대씩 충돌하는 것에 맞먹는 에이즈 환자의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2004년 방콕 에이즈 컨퍼런스는 "Access for all"로 이제 답을 내야 한다.

첫째날 (7월 11일 일요일) - Denied Access for All

오후 4시의 컨퍼런스 개막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행사장소인 IMPACT로 향했다. 드디어 우리가 태국에 도착한 이후 컨퍼런스와 관련한 첫 번째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깃발과 유인물을 준비해 IMPACT에 도착해서 주차장 주변의 행진대열에 합류했다. 이미 태국의 Thai Treatment Action Group이 조직한 행진대오들이 차량의 인도를 따라 천천히 행진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번 15회 에이즈 컨퍼런스의 주제는 "Access for All" 이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에이즈 치료와 예방서비스, 그리고 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그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행사에 모든 이들이 참여할 장을 만들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그것이 세계 에이즈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

다는 것도 중요한 Access for All의 의미 일 것이다. 그러나 conference 시작 전부터 이 접근권은 원천봉쇄 되었고 비판 받고 있었다. 1000달러에 달하는 행사 참가비는 많은 뜻있는 활동가들과 태국 민중들의 행사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기에 충분했다. 태국의 많은 참가자들은 "Access For All"이라는 문구위에 붉은 색으로 "DENIED"라고 덮어쓴 마크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참여 했는데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나마 태국 활동가들과 감염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Global village"는 막상 주경을 열어보니 실질적 배려가 될 수 없었다. Global village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국제적 연대수준의 집회는 처음 참여한 것이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로 인한 약간의 긴장과 태국역량의 영어로 외쳐지는 "ACCESS FOR ALL!!" "WHERE IS 10 BILLION" "BUSH TELLS LIES" 구호들로 나는 흥분되었다. 우리도 구호를 따라하기도 하고 길가에 서 있는 delegates들과 기자들에게 영어로 된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천천히 Global village 앞으로 걸어갔

다. 미리 준비해 간 "Free AIDS Drug"라고 적힌 파란색 스티커는 다른 행진 참여자들이 앞 다투어 가져가고자 해서 무척 뿌듯하기도 했다. 구호를 외치며 Global village 앞에서 본격적 집회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세계 에이즈 정책과 기금의 모금에 각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할 장이었던 정상회의의 무산은 이 대회가 또 다른 말잔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낳게 했다. 에이즈대회의 공식 행사의 하나로 예정되어 있던 에이즈정상회담은 각국 정상들의 바쁜 일정을 이유로 취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에이즈정상회담은 탁신 태국 총리의 제안으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중국, 브라질, 캐나다, 우간다, 르완다 등의 정상들이 초대되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초대에 응한 정상은 우간다 대통령뿐이었다.

-다음호로 이어집니다.





독자편지

인태훈씨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지지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옥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처 대체복무제 관련한 법원판결이 나오고 사회적 쟁점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비어호타종인 병역거부자 중 한 사람인 인태훈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려 한다. 그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100일 이상 수감되어 있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복귀속 수사되어지고 있는 지금 그는 재판과정에서조차 자신을 위한 변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재판장에서 끌려나갔을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병역거부 소견에서 동성애자로서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자들이 적응할 수 없는 환경'과 '제도적 차별'을 문제제기하였으며, 평화주의자로 '전쟁을 반대'하는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밝혔다. 나는 개인적으로 2년이라는 군생활동안 동성애자로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가 주장하는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그의 양심에 지지를 보낸다.

하지만 동성애자운동 내에 그의 러거 활동라고도 인해 공개적으로 그의 병역거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당체/개인이 있을 만큼 동성애자 인권단체 내에서 그의 병역거부에 대한 지지는 모아지지 않을 전망이 크다. 물론 나 역시 그의 활동라고까지 떨어뜨려 그의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러거에 동성애자인권연대 안팎으로 개인의 인격을 의심할 만한 행동들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그는 회원들에 의해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에서 제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태훈 동성애인권활동을 하던 시절에서의 러오와 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구분하지 못한 채 병역거부운동을 지지하지만, 인태훈은 안된다'라는 접근은 운동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지금 인태훈씨가 동성애자로서, 평화주의자로서 선언한 양심은 국가폭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음을 봐야 한다. 그의 인권문제, 러오에만 함몰되어 지지를 철회한다면, 그것은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운동 내에 분명히 가져올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원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의 병역거부 사실조차 모르는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많은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동성애자들도 있지만, 같은 소수자로서 바라

보거나, 양심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 등 지지를 보내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성소수자를 거부하는 군대에 반대하며 병역 거부를 사신을 많은 동성애자들이 알게 된다면 인태훈씨의 병역거부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많은 우군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단체 내에서 분명히 병역거부 논쟁에 침을 '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의 러오에 조건을 댈줄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이 국가폭력에 의해 묻혀지고 있는 지금 그의 양심과 함께,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무지갯빛 단일기 휘날리며...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강형진

queerkorea@empal.com

무더운 폭염만큼이나 짜증나는 일들이 줄지어진다. 더러운 이라크 전쟁에 발을 못 댄가 환장한 노무현 정부, 노동자를 감시하고 핸드폰을 드디어 족쇄로 사용하는 거대자본, 마사오 다카키의 딸이 보수정당의 우두머리는 것도 모자라 어쭙잡은 정체성 논쟁으로 쓰레기가 된 정치.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공안정국의 부흥을 꿈꾸는 기득권 세력은 한국청년단체연합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청년들을 잡아들이고 있고, 이들은 군사주의를 부추기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를 선포했다. 이에 맞서는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은 익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 무더위만큼이나 뜨겁기만 하다. 그리고, 8월이다. '쏟아져나 폭우!' 몰아쳐나 이슬들! 우리는 통일전사 8월처럼 산다! 난 노래처럼 8월은 익제식민지를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으나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허리를 부여잡고 살아온 지 50년간의 세월을 다시 이어가기 위한 통일투쟁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달이다.

분단의 문제는 동성애자와 무관할까? 분단의 문제, 끊어진 허리를 이어가는 문제는 동성애자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힘의 논리에 양분된 분단 그로부터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 그리고 이들과 손잡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통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들에게 '다른 생각'을 새빨간 붉은색으로 입히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작업에 '동성애'는 '다름'의 차이'의 대상이 아닌 '특정'의 차이'의 대상으로 고착되었고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로 민중들에게 인식시켰다. 순응을 위한 항해가 계속 되어 갔다고 믿은 수구 보수 세력도 동성애 현오 환자들에 맞서 민중들은 잠에서 깨어나 투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관용을 보편적인 인식으로 가져갔고, 성적지향의 차이가 '다름'의 문제

로 이해되기까지 동성애자들은 성적정체성을 커밍아웃하며 싸워왔다.

통일운동 진영은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보편적 다름'을 관용'으로 이해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진보진영 일부에서 신심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동성애 인식의 미성숙된 '발언' 등은 동성애자들을 식망시키고 있다. 그 발언들의 중심축이 되는 통일운동 진영 내부에서는 - 어느 운동이 동성애 인식에 편할 수 있을까 많은 - '동성애/동성애자/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일까?

"동성애는 자본주의 파행적 현상" -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중 정책위의장 후보 이동대 후보 발언

"결혼, 입양에 대한 부분은 반대합니다." - 민주노동당 김창현 사무총장이 붉은이반 회원에게 한 말

사실, 지금까지 동성애 문제에 대한 통일운동 진영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에 이 두 사람의 발언으로 미루어 통일운동 내부에서의 동성애/성소수자/문제의 인식은 어느 정도 보여 진다고 본다.

통일 조국의 '주체'는 무지갯빛 단일기 휘날리며 '사람'이다.

평자 역시 통일운동으로 진보운동을 시작하였고, 자주적이고 민중에 기초한 통일 조국 건설의 투쟁은 마땅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의 발언들이나 통일 운동을 대중적으로 끌어가는 러정에서 생산되는 '우리 민족 제임주의' 같은 추상적인 선언/구호는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 '주체'의 다양한 색을 희석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무조건' 통일 조국의 '격정적 국면'을 열어 가기 위해 6.15 공동선언-공동선언의 의미는 소중하다기치놀이 '달려가자!' 라고 아직까지 전체운동복무 운운하는 부분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통일된 조국의 정체성, 이 운동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러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성애자가 꿈꾸는 통일의 세상은 무지갯빛 단일기가 휘날리는 세상이다.

민족과 조국의 단어 사용, 구성에 대한 부분은 번번히 하고, 민족, 조국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통일'이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온 통일 운동 진영은 앞으로 반드시 다양한 색을 지닌 '주체'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통일에 대한 그림, 통일 조국에 대한 희망은 한바탕 파란색으로만 그려져 있는 단일기처럼 단 한 가지 색은 아니다. 통일운동 진영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람, 주체에 대한 해명러 세계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체에 서는 것이 러면 무엇인지 밝힌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1, 성적정체성, 성 지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교육이든 토론이든 논쟁이든...

QUEER EYE

피에르 & 질 展 관람기

연재

동시신호(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1. 피에르&질, 서울시립미술관이 노리는 두 마리 토끼

미술이 독불장군마냥 다른 분야와 아무런 관계 없이 독립해 존재한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 자외선 타이트, 순수미술의 독립적인 정체성 모색을 지향하던 모더니즘 시대마저도 캔버스 밖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문화주도권 쟁탈전이 진행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회화 장르에서 모더니즘의 헤게모니의 전복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 일부는 정체성 모색의 한계, 캔버스 너머 다른 분야들과의 결합을 시도했다는 것들이었음을 상기해보면 현 사회에서의 미술이 그들의 자립의지와 상관없이 감상 외의 역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절대왕정의 근대국가들이 속속 자리 잡기 시작한 바로크시대, 국가 간 평화 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유럽의 귀족화가 루벤스나 벨라스케스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오늘의 미술계는 문화교류나 정치적 관계를 확인하는 이벤트로서의 외교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 내고 있다. 특히나 공립미술관의 경우는 두둑한 자본을 등에 업고 국가대 국가 간으로서 미술교류가 쉽다는 메리트가 주어진다. 연장선상으로 지난 4월에 열린 피에르&질 展은 프랑스 대사관과 서울시의 협력이 돋보이는 결과물이었다. 개인이 소장한 작품들을 대사관의 도움으로 수집해 이번 전시에 진열해놓았으니, 전시 첫날 프랑스 외교관을 초청해서는 드러내놓고 감사하는 게 그리 어색해보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서울시립미술관의 이번 전시, 자신을 스스로도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작가의 작품을, 그것도 한국이라는 (그들 나름대로 성적으로는 아직 프랑스보다 보수적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서 작가가 갖는 특유의 섹슈얼리티적인 코드를 보여줌으로서 부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이 역력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시적인 문화교류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표본을 제시하려는 듯 한 인상도 짚어 보아기에 더더욱 까발려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2. 피에르&질

본론을 들어가기 전, 우선 작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할 듯하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 두 명의 프랑스 작가들은 30여 년 간 공동 작업을 해오고 있는 커플이다. 피에르가 사진을 찍고 질은 미장센 세팅을 맡거나 사진에 페인팅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진다.

이들의 작품은 대개 신화, 역사화처럼 수백 년 간 변함없는 도상으로 그려진 것들이나 카우보이, 군인처럼 '전형적으로' 생각되어오던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가 주요 소재가 된다. 여기에다 별이든 구슬이든 인물 주위로 반짝이는 빛이 화려하게 작품에서 뿜어 나오는데, 어색하고 천박하리만치의 장식적 가미하는 것이 이들 작품에서 관찰되는 공통점 중 하나다.

공간적 측면을 이야기해보면 (작품 컨셉이 그리스 신화 모티브가 될 경우, 그리스 건축 모양의 액자를 활용한다

던지 하는 식으로) 작품 속 소재에 따라 액자의 컨셉도 맞춰지는데, 이런 특징은 뒷 배경을 섬세한 붓질로 처리하면서 조명과 공간을 조작하여 폐쇄적인 가상의 공간을 창출해내는 작업 방식과 함께 일종의 연극 무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아마도 이들이 만들어 낸 공간은, 마치 <승천하는 예수>의 주제를

성당 천장에 그려던 바로크미술에서 나타나는 빛과 회화의 일루전적인 공간연구를 활용한 부분과도 상통할지 모른다. 사진과 회화라는 매체의 성격만 보더라도, 그들이 표현한 공간은 '지금 여기에' 있는 듯하면서도 '가상'을 벗어나지 않는 연극 무대 같은 꿈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기엔 현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그들 이야기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런지도.

오래 캔버스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관객과 마주보고 있는 모델은 대개 길거리에서 우연히 캐스팅되거나 연예인을 섭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른다고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많은 갈등(이름테면 식의 싸움?)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추측도 가져본다.

이렇게 캐스팅된 모델들은 종교화, 역사화, 정치선전물 등 기존의 컨셉 속에서 S&M, 하드코어와 같은 다양한 성적 취향의 코드들로 섞이며 나타난다. 인상적인건, 작가는 모델들에게 옷만 벗



이라고 주문하는 것을 넘어 근육질 남성에게 여성용 드레스를 입힌다거나 인형을 안기고 화장을 시키는 등의 작업을 한다던가, 일본 여성극 배우에게 여자분장과 남자분장을 시켜 사진을 찍는 등 시각적인 접근을 통해 기존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뒤죽박죽 섞어놓는다는 것이다. 혹여나 '불에 박힌 여성성과 남성성의 단순한 뒤집기는 아닐까'란 의구심이 들지 모르겠으나, 실제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것 만큼이나 너무도 다양한 모델들의 컨셉 탓에 그런 우려는 금세 사라질 것이다. 뭔가 낯선 듯 하면서도 (이번 전문용어로)끼스럽다고나 할까? 다소 사회적으로 배격당할 소지가 충분할 그들의 작품은 가볍고 육감적인 분위기로 중무장한다.

-다음호로 이어집니다.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A Mi Madre Le Gustan Las Mujeres) 영화평

유결(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다. 엄마라 함은 이성애의 표본 아닌가 말이다. 아با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까지 한 엄마가 원이 넘어서 '애인이 생겼는데 여자란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꽤나 보고 싶어졌다. 제목에서 생각되는 내용도 물론이거니와 이른 레

오노르 와틀링이 나온다는 것! 유럽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 때문에 이 영화가 과연 유쾌하게 풀려 나갈 것인지 의문스럽긴 했지만,

약간의 불안을 안고 영화를 보기 시작한 나는 곧 그 불안이 기우임을 알았다. 엄마는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나의 사랑을 인정해줘." 라고 울며 매달리지 않

는다. 오히려 당당하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여기까지 왔다면 자신의 사랑을 딸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패닉에 빠져버린 세 딸, 그리고 정신 없는 소동들. 그 중의 압권은 막내딸의 콘서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을만큼 가볍고 유쾌하게 흘러가는 영화 속에서 뽀

어내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않다. 어쩌면 우리 아주 가벼울 수도 있는 일을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고 살고있지는 않은지. 대다수의 편견으로 인해 무겁지 않은 일을 고민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부모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친구라면 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그게 '나'라면?

를 자신 없어 하고 후회하는 주인공 블레이크- 레오노르와 블링이다. 역시, 이쁘다 -은.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연애에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신에 대한 불신에 시달리다 유쾌한 반전을 보이며 자신을 찾는 결말을 보여준다.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엄마의 연애가 아니었을 거다. 일반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엄마의

연애를 통해 주인공이 자신을 찾는 것. 하지만 내게는, 다 늦게 커밍아웃을 한 엄마를 통해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압울하기도 불쾌하기도 않게, 따뜻하게 그려짐이 즐거웠던 영화다. 덧붙여 귀엽고, 천진난만하고, 인간적이던 레오노르와 블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지만,



연재 인권운동과 나 찬술 (동성애자 인권연대 활동가)

'인권운동과 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달라고 부탁받았을 때부터 나는 과연 인권 운동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생각해 보았다. 내가 하고 있는 인권운동이란 사실 거창한 일은 아니다. 동인련 사무실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파병반대' 집회가 있으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집회에 나간다. 그리고 동인련 및 여러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으면 참석하는 일들이다. 작아 보이는 이런 일들은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성장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며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나의 성정체성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하며 괴로워하던 내게 동인련과의 만남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었다.

또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따라서 나에게 인권운동은 동성애자 대중을 위한 운동이기에 앞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운동이다. 그래서 나는 동인련에서의 활동을 포기할 수 없다.(그래서 맨날 뼈를 문졌노라고 하는 것이다..ㅎㅅㅎ)

게다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와 나의 친구들,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확대될 수 있다. (음..이런걸 일석이조라고!!) 이러한 이유들로 처음에 했던 인권운동이란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인권운동은 나에게 '행복'이다 라고 하고 싶다.

앞에서 말했지만 인권운동이란 사실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나의 시간을 조금만 보태면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나와 함께 했으면 한다." 모든 동성애자들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얻는 그날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후원회원을 기다립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제반 활동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개인의 의식있고 성의있는 '후원참여'는 동인련의 운동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기금은 한국의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는 모든 행동과 사업에 규모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정기후원: 매월 1구좌(10,000원) 이상을 자동이체나 지로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

*비정기후원: 1구좌(10,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일시적으로 온라인입금

*후원계좌: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정율(동인련)

동성애자인권연대 일상소식 / 행사 / 주장등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lgbtvoice@hanmail.net

WANTED!

우리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2004년 여름 인권캠프 포스터입니다.



2004 여름동성애자 인권캠프

강원도의 힘, 미래를 준비하는 힘

Program

pride program
나를 찾아 떠나는 즐거운 수다

history program
차별에 대한 인종은 기억이 있어요~!!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본 HIV/AIDS

인권캠프수상 program

산과 오묘하며...& 물놀이

동성애자친구단별공연 강원도에서의 미래

8월 13일 부터 15일 (2박 3일) 강원도 강원 국민관광지 내 수련원 참가비 _ 39,000원 (청소년 35,000원)

2004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공동준비단 홈페이지 www.outpridekorea.com/camp

동성애자인권연대 10대원칙



-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모든 성적 소수자들의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현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 우리는 성적 소수자들 내부에서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성적 지향성에 의한 차별을 비롯한 계급적, 계층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조직과 유지에 기여한다.
- 우리는 다양한 동성애자 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난민, 아동, 청소년, 빈민 등 억압, 탄압, 소외된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인권단체간의 연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성적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